

일·삶·쉼이 조화로운 양성평등 행복 경북

여성 창업자의 도전부터 성장까지! 경북여성 창업기업 팝업스토어 개최 및 G스타트업 페스티벌 & 경북여성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굴·확산 체험부스 운영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2023년 9월 5, 6일 양일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9월 5일에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동행관 1층에 야외부스를 설치하고 도내 여성 창업 활성화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23년 경북여성 창업기업 팝업스토어』를 열었고, 9월 6일에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동행관 다목적홀 로비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북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북여성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업』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여성 창업기업 및 사회적 기업 20개 사가 참여해 각 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홍보 및 판매했으며 체험 부스, 사회적경제 확산 포토존 등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접수자, 카카오톡 '새일참견' 채널 추가, 구입 증서 5장 이상을 제출한 참여자에게 각각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도내 여성 창업자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 상담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꾸준한 노력, 빛나는 성과! 2년 연속 여가부 장관상 수상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9월 12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3 경력단절예방 선포 및 새일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2년 연속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광역새일센터의 지역 일자리사업 활성화와 지역센터 역량강화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새일센터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광역형 우수센터로 선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성과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고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경북광역새일센터는 2010년 여성가족부 경북새일지원본부로 지정된 후, 도내 8개 새일센터(경산·경주·구미·김천·영주·영천·칠곡·포항)의 사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새일센터 미지정 15개 시군에 취업상사를 파견해 경북 여성들이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G스타트업 페스티벌, 팝업스토어,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올해는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지원하는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앞으로도 경북 여성 취·창업 전문기관으로서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과 삶과 쉼의 균형을 위해! 내일(Tomorrow)을 이어주는 일·삶·쉼 페스티벌 개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9월 14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경력단절예방 주관을 맞아 <내일(Tomorrow)을 이어주는 일·삶·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력단절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경력있다!! 토크콘서트'와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응원하는 '경력단절예방 유세일? 예스!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G스타트업·사회적경제 페스티벌'도 함께 운영됐다.

'경력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속 시원한 토크'를 주제로 5명의 패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일·가정 균형을 위한 노력,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이야기하며 도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어진 '경력단절예방 유세일? 예스!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총 36건의 우수사례 중 3개 부문(개인, 종사자, 기업부문)의 당선작 시상식을 진행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총 20여 개의 도내 여성창업기업과 여성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한 'G스타트업 페스티벌 & 경북여성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운영해 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자에게 홍보의 장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페스티벌에 참여한 도민 역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내일을 이어주는 일·삶·쉼 페스티벌'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북여성정책개발원·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전문직업훈련, 취·창업 연계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